

팝 음악과 패션에 관한 연구

김 미 정* · 이 상 레**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 ·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Pop Music and Fashion

Mi-Jung Kim* · Sang-Rye Lee**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2002. 12. 11 투고)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pop stars' fashion style by the changes of pop music from the 1950's of the formative period of a rock-n-roll to the 1990's.

The author could examine the features of pop music as follows: the 1950's rock-n-roll, the 1960's rock and psychedelic rock, the 1970's punk rock, the 1980's new wave and the 1990's reggae · hip-hop.

Based on the examination, the author could do sampling of the fashion style, on which current pop music had influence, by rock style, new wave style, and reggae hip-hop style.

The rock style makes appearance again as a new style when it is recently accepted to be a fashion.

The 1960's hippie, which contains long-cherished desire of antiwar and peace after September 11, 2001 Attack on America and the Afghan War, reappeared as luxurious hippie, and the hybrid punk has been made because barriers between cultures have been collapsed to mix items and combine contradicting components at fashion field.

The new wave style destroys sex difference of clothes, and men's clothes style has introduced women's dress style, so that androgynous style, which has handsome boy image with womanlike hair style and makeup, and the lingerie style without distinction of underwear and outer garment has made appearance through new cloth wearing ways and overexposure.

The reggae and hip-hop style makes appearance to overcome social strata, groups, ages, regions and gender, etc and become one of the 21st century culture codes.

In conclusion, pop music have played very important roles until expansion and popularity of new fashion style, and has been quickly expanded by mass media development. When the pop music fashion styles are introduced to high fashion, fashion styles have become more polished and high-quality to

expand them at main fashion world again.

Key Words: Pop music(팝 음악), Pop star(팝 스타), Rock style(록 스타일),

New wave style(뉴 웨이브 스타일), Reggae · hip-hop style(레게 · 힙합 스타일)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 대중매체의 발달과 중산층의 생활향상 등으로 경제권을 가지기 시작한 젊은 세대들은 아르바이트와 유복한 환경으로 인해 소비력이 생김으로써 주로 레코드 구입, 영화, 자동차 구입 등에 돈을 쓰게 되고, 이로 인해 영화와 레코드 시장이 형성되어 발전하게 된다. 젊은이들은 가수들의 공연장에서 서로에 대한 강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들도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 갔다. 비슷한 생각과 공통의 감정을 지닌 이들은 점차 단순한 문화집단이 아닌 거대한 사회 집단이 되었고, 기성세대와 맞서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사상과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현상, 기존 사회에 대한 반항, 현실에서의 도피, 인종차별 등을 노래한 가수들은 곧 이들의 우상이 되었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까지 모방되어졌다. 이후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리드하기 시작하면서 패션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어진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스타들을 우상으로 여기며 그들의 옷을 걸침으로써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이것은 곧 유행이 되고, 팝 음악은 새로운 패션스타일을 창출하게 된다.

현대 팝 음악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의 영향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문화적 현상과 악기의 발달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생성되고 있다. 팝 음악이 지니는 문화적인 특징은 또 다른 문화 현상인 패션에도 반영되어, 특정 시대와 사회에서 유행하는 음악의 스타일과 패션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팝 음악 스타에 의해 나타난 패션현상은 어떠한 스타일들이 있으며, 팝 가수들은

음악적 수단인 패션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이러한 패션스타일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산되어 유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팝 음악 패션이 현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어떻게 변하여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팝 스타들에 의해 나타나게 될 여러 패션현상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연구방법은 로큰롤이 형성된 1950년대부터 록의 변성기인 1960년대 초와 60년대 후반 현실도피를 의미하는 사이키델릭 록, 1970년대의 실업과 빈곤에 저항한 펑크 록, 록의 의미가 퇴색되며 새롭게 나타난 1980년대의 뉴 웨이브 음악과 1990년대 새롭게 떠오른 흑인 음악인 레게 · 힙합까지 젊은 세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팝 음악과 최고의 스타들에 의해 확산되어 유행하게 된 대표적인 패션스타일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팝 음악이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친 스타일을 록 스타일, 뉴 웨이브 스타일, 레게 · 힙합 스타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음악 관련 서적과 잡지, 인터넷 관련 사이트의 시청각 자료와 패션 관련 서적 잡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II. 팝 음악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패션

1. 1950년대 로큰롤(Rock-'n'-roll)

1950년대 1·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부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중문화의 확산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50년대 초 음반의 주요 구매자가 된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음악을 원했고 그런 흐름을 타고 등장한 로큰롤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로큰롤은 블루스, 컨트리, 가스펠, 재즈 등 이전의 대중음악이 집대성된 장르다.

로큰롤이 탄생한 1950년대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이 일궈낸 풍족한 생활로 인해 사치와 소비가 만연했으며 기성세대의 보수적 사고방식에 반항하기 시작하였다. 50년대 중반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서 말론 브란도와 제임스 딘이 그들의 우상이 된다. 1955년 제임스 딘 주연의 '이유 없는 반항'과 말론 브란도가 주연한 영화 '폭력 교실'이 개봉되면서, 로큰롤은 반항적인 젊은 세대들을 대변하게 된다. 영화 주인공이 입고 나온 티셔츠나 블루진, 가죽 재킷, 오토바이는 반항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로큰롤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음과 동시에 젊은 세대 문화의 일부가 된다.

로큰롤의 대표적 스타인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는 다소 긴 듯한 머리에 입가로 얇게 피지는 장난기 어린 미소, 두툼한 눈썹의 눈매는 응석을 부리는 소년처럼 순진함이 가득했으며, 여기에 노래를 부를 때 등장하는 엘비스의 골반 춤은 '성적 에너지' 강한 로큰롤의 이미지를 가장 확실하게 대변해 준다.²⁾ 젊은이들은 이전에 보지 못한 정열적이면서 반항적 이미지와 관능적인 무대 매너에 충격을 받았으며 로큰롤을 통해 젊은 세대들은 춤과 패션으로 젊음을 발산하였다.

특히 엘비스에 의해 유행한 헤어스타일은 1950년대 대표적인 스타일로 소년들뿐만 아니라 소녀들까지 모방하는 현상이 생겼다. 헤어스타일은 머리 측면에서부터 뒷부분까지 새의 날개로 감싸는 것과 같은 스타일³⁾로 D.A(duck tail)로 불리었다. <사진 1>에서의 그의 패션은 셔츠를 풀어헤친 스타일과 기존의 정장 스타일에서 벗어난 세퍼레이트를 애용했으며, 바지는 아랫단이 접힌 팬츠(pants)를 착용하였다. <사진 2>는 반항의 상징인 검정 가죽 의상과 빛 바랜 힙스터(hipster)스타일의 긴 바지, T셔츠를 입고 특유의 제스처로 젊은이들을 열광 시켰다. 이러한 패션은 이미 영화를 통

해 젊은이들 사이에 입혀졌으며, 엘비스가 패션을 모방함으로써 음악적 이미지가 더해져 젊은이들에게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사진 1> 세퍼레이트 정장
엘비스 프레슬리(1956),
현대패션 100년, 2002.

<사진 2> 선정적인
가죽의상 엘비스(1956),
Rock Fashion, 1997.

2. 1960년대 초반 록(Rock)

1950년대 말은 대중, 대량문화, 플라스틱, 모조 문화의 전성기이며, 소비문화 시기로서 급격한 변화가 전세계의 정치, 경제를 휩쓸었던 시기이다. 이때 기성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화가 모즈였으며⁴⁾, 모즈 문화는 50년대 말 영국을 중심으로 하류층 노동자 계층의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해 많은 대중에게 수용되었다. 이들은 상류생활을 지향하고 중성적 관념을 수용하였으며, 의복을 통하여 그들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특징적인 모즈 스타일을 만들었다.⁵⁾

모즈는 1962년과 1966년 사이에 번성하였으며, 모즈 문화확대에 주체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팝 음악이었다. 1960년대 팝 스타들이 부상하면서 관중들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는데 팝 스타들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게 된다.

비틀즈(Beatles)의 등장으로 로큰롤은 미국의 대중 음악에서 전세계적인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비틀즈는 미국 초기 로큰롤에 잘 짜여진 멜로디와 화음 등을 가미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 냈다. 이들의 음악적 사운드는 가볍고 상쾌하고 달콤한 로큰

롤로 친숙한 멜로디와 호소력 짙은 가사가 특징이며 패션 또한 음악에 맞춰 이미지를 만들었다.

<사진 3>에서 보여지는 비틀즈는 기존의 록 그룹들이 입은 가죽 재킷과 같은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의 모즈 스타일로 입혀졌다. 앞머리를 직선으로 자른 미소년 같은 헤어스타일과 피에르 가르팽이 디자인한 칼라 없는 수트, 뽀족한 부츠 등의 패션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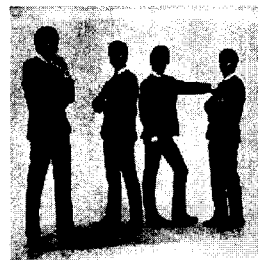
1963년에 리듬앤블루스와 블루스의 영향을 받은 롤링 스톤즈(Rolling Stons)는 비틀즈와는 달리 불량스럽고 거친 이미지를 로큰롤에 집어넣은 최초의 그룹이다. 비틀즈가 “사랑해주오”, “도와주오” 하며 수동적으로 애원하는 노래를 부를 때, 이들은 65년 미국 데뷔작 “I can't get no satisfaction”에서 ‘만족할 수 없어’, ‘사랑해 주마’, ‘오늘밤 함께 지내자’라는 대담한 노래를 불렀다.⁶⁾ 불손한 태도, 거침없이 드러내는 노골적인 성욕, 권위에 대한 도전 등은 젊은이들의 하위 정서를 대변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후 80년대 메탈 그룹들에게서 볼 수 있는 ‘불손한 섹스어필의 전범’이 되었다.⁷⁾

<사진 4>는 1964년도에 발매된 앨범으로 데뷔 당시 패션을 볼 수 있다. 캐주얼 하지만 샤프한 3-버튼의 재킷과 노 넥타이의 셔츠, 좁은 라펠, 플랫 포켓이 달린 스트라이프 수트와 세퍼레이트로 착용하였으며, 길어진 헤어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산뜻해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반항적인 이미지가 풍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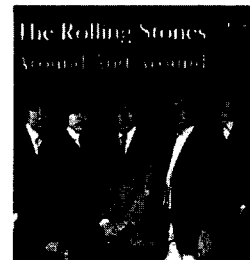
1965년에 데뷔한 그룹 후(Who)는 시끄럽고 폭력적이면서도 불안정한 음악으로 모즈 족들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후의 악기 파괴행위는 기성세대의 대한 반항과 현실로부터 탈출을 갈망하던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다.⁸⁾

독특한 의상과 악기파괴 등의 일탈적 행동은 수많은 추종자를 만들었고, 그들의 스타일을 따라 하는 젊은이들은 광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사진 5>, <사진 6>은 그들의 음악과 더불어 파격적인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튀는 색상의 수트와 목에 단추가 채워진 셔츠, 캐주얼한 느낌의 쓰리 버튼 재킷의 코드, 영국 국기인 유니온 잭 재킷, 가슴에 파넛과 화살촉 모양이 새겨진 그래픽 패턴 티셔츠와 하얀바지는 더욱 다양해진 모즈 패션을 볼 수 있다.

이런 모즈 그룹들의 음악과 패션은 매니저에 의해 모즈 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상품이었으며 그로 인해 클럽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들 그룹들간의 차별화 전략으로 각각의 음악 스타일에 맞게 새로운 패션들이 창출되었고, 이러한 패션은 젊은 층의 모즈들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과 전 계층의 의복에 퍼졌으며 제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림 3> 칼라없는수트를 입은 비틀즈 (1964), A History of Fashion, 2000.



<사진 4> 캐주얼한 3-버튼 재킷을 입은 롤링 스톤즈 (1964), 록의 시대, 2001.



<사진 5> 그래픽 무늬의 T셔츠의 더 후 (1966), Rock Fashion, 1997.



<사진 6> 유니온 잭 재킷을 입은 더 후(1966), Rock Fashion, 1997.

3. 1960년대 후반 사이키델릭 록 (Psychedelic Rock)

1964년 미국의 베트남 전 개입의 규모가 엄청나지면서 반전운동과 반항의 물결은 미국전체를 휩쓸었다. 물질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적인 집단으로 기존사회에서 이탈하여 평화적 해결방안을 추구하며 사랑과 평화의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세대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 것이 히피 문화집단이다.⁹⁾

히피들은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았고 원할 때 떠났다.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히피들은 기존의 규칙과 질서를 거부했으며, 자유 연애와 명상을 실천했다. 이들은 의미 없는 전쟁과 핵무기를 거부했고, 환경 오염을 걱정했으며,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었다. 히피들의 정신이 잘 나타나는 것은 40만 명이나 몰려들어 전설이 되었던 우드스탁 페스티벌(Woodstock Festival)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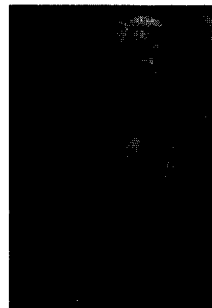
1960년대를 대표하는 음악페스티벌이었던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록 페스티벌의 시초였으며,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뮤지션들이 총 출현하였고, 록 음악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다.¹⁰⁾ 이러한 록 페스티벌에서는 히피들의 문화풍토를 표현한 팝 음악인 싸이키델릭 록(Psychedelic Rock)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마리화나나 LSD등의 환각제사용에서 얻은 이미지를 사운드화 하는 실험음악이었다. 이러한 사이키델릭 사운드와 창법으로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대표적 뮤지션으로는 제니스 조플린(Janis Joplin)과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등이 있다.

제니스 조플린은 1967년 8월 Monterey Pop Festival에 참가하면서 폭발적인 창법과 육감적인 무대 매너로 인기를 얻는다. 페스티벌의 계기로 단숨에 여성 락 보컬리스트로 군림하게 된 제니스 조플린은 남자들도 부러워하는 파워와 거칠고 메마른 사운드 창법, 칼칼하고 갈라진 음색으로 블루스 락 보컬의 전형을 창조해 내기에 이른다.¹¹⁾ 1968년 초에는 지금 까지 불려지고있는 Summer Time과,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노래한 Ball and Chain 등이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 <사진 7>은 긴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집시 풍의 블라우스에 여러 개의 목걸이를 했으며, 화려한 털 코트를 입은 모습은 히피의 전형적인 옷차림을 보여 주고 있다. <사진 8>은 우드락 페스티벌에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무대 위의 그녀는 환각 상태에서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했으며, 히피들에게는 자유와 분방함의 표상이었다.

지미 헨드릭스는 1969년 우드스탁 공연에서 전성기를 맞는다. 오른손잡이용 기타를 들고 연주하며 현란한 쇼맨십으로 청중을 열광시켰다. 또한 지미는 당시의 우울한 젊은이들의 심경을 마치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 흐느적거리는 목소리와 울부짖는 듯한 연주¹²⁾로 젊은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분노를 해소해 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그의 싸이키델릭한 음악과 더불어 무대 의상 또한 화려했다. <사진 9>, <사진 10>은 그러한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현란한 무늬의 셔츠, 술 달린 인디언 풍의 옷, 머리밴드 등 여러 가지 에스닉한 액세서리 등으로 장식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아프로 헤어는 가공하지 않고 커다랗게 부풀려 연출한 것으로 장식이나 정돈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방치하여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히피의 정신을 표현하였다. 이는 히피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에 대



<사진 7> 비즈와 스팽클로 화려하게 장식된 옷의 제니스 조플린 (1968), Rock Style, 1999.



<사진 8> 동양풍 자수 코트의 제니스 조플린 (1968), www.fashiontalk.com



<사진 9> 현란한 무늬의 사이키델릭한 셔츠를 입은 지미 헨드릭스(1969), Rock Style, 1999.



<사진 10> 술달린 인디언 의상을 입은 지미 헨드릭스 (1969), www.fashiontalk.com

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국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대체시켜 에스닉, 노스텔지아를 나타낸 것이다.¹³⁾

이러한 패션은 락 페스티벌에 모인 히피들이 서로의 옷을 공유하고 락 페스티벌이 매체를 통해 보여지면서 확산되었으며 히피문화를 표현한 팝 음악은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사이키델릭한 특의 환각적 요소는 많은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었다.

4. 1970년대 펑크 록(Punk Rock)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젊은 세대의 사상과 정신의 변혁은 급변해 가는 새로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가진 형태를 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 갑자기 나타난 것이 펑크 현상이다. 영국은 만성적인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고, 1970년대 중반이후에 실업자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실업자의 대부분이 노동계급 출신의 젊은 청소년들이었다.

펑크는 실업과 빈곤에 저항하는 정신적 주체를 지닌 일종의 저항 문화로서 음악에서 처음으로 표현되었으며, 1976년 기성 사회에 대한 반항을 표현한 런던 록 그룹 가수인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에 의해 무대 의상을 젊은이들이 모방하던

서 비롯되었다.

섹스 피스톨즈는 런던의 King's Road의 부띠끄 'sex'의 <사진 11> 주인인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이들의 매니저 말콤 맥라렌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의 출현은 록 계의 이변일 뿐 아니라 패션과 미술, 청소년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¹⁴⁾ 이들은 말콤 맥라렌에 의해 철저하게 만들어 졌다. 무대를 뒤집어 엎거나 의자를 객석에 집어던지고 청중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것을 본 청중 또한 흥분하여 공연장을 헤집고 다녔고, 연주가 끝난 뒤에 클럽 안은 폐허가 되었다. 이제 음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관객을 조롱하자는 것이었다.¹⁵⁾

1976년 싱글앨범 "God Save the Queen"에서 섹스 피스톨즈는 "영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노래했고, 이 곡은 발표하자마자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그룹의 리드 싱어 자니 로튼의 패션은 영국 전체를 휩쓸었다. 여왕 얼굴을 낙서처럼 프린트해 갈기갈기 찢은 티셔츠와 안전핀, 비대칭으로 디자인한 검은 가죽 점퍼와 <사진 12>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아무렇게 낙서한 옷 위에 걸친 쇠사슬, 주사기, 안전핀, 고슴도치처럼 뾰족하기 뻗친 머리카락 등, 정장과 격식의 나라 영국에서 그들은 반 패션의 선구자가 되었다.¹⁶⁾



<사진 11> 런던 킹스 로드의 섹스샵 (1974), A History of Fashion, 2000.



<사진 12> 섹스 피스톨즈의 리더싱어 자니 로튼의 패션 (1976), Rock Style, 1999.

록음악에 영향을 받은 펑크들은 공격적이고 불

쾌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스타일들이 나타났는데, 형형 색색으로 염색한 헤어스타일과 모히칸족의 헤어스타일, 공포감을 자아내는 메이크업, 폭력적인 이미지의 액세서리, 더럽고 혐오스러운 복장 등의 문명 파괴적인 양상을 띠고서 그들의 근본적인 허무주의, 히스테리, 폭력 그리고 성 혼용의 모습 등을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펑크 록은 거꾸로 하이 패션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¹⁷⁾

5. 1980년대 뉴 웨이브(New Wave)

1980년대 글램 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팝 가수들은 음악적인 면에서 더욱 단순하면서 감미롭고 전자 사운드의 뉴 로맨틱 록인 댄스뮤직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댄스뮤직은 이전의 록 그룹과는 다른 귀족주의, 신비주의 등을 노래한 반 록적인 음악이었다. 듀런 듀런(Duran Duran)이나 컬처 클럽(Culture Club),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프린스(Prince) 등이 그 대표적인 뮤지션이다. 이들은 화려한 메이크업과 패션에 있어서 중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특히 컬처 클럽의 리드 싱어인 보이 조지 <사진 13>는 여자보다 더 길은 메이크업을 하고 긴 머리는 땅아 길게 늘어뜨리고, 액세서리로 치장을 했으며, 주로 모자를 쓰고 노래하였다. 듀런 듀런 <사진 14>은 데뷔 당시 제트기로 세계일주 여행을 다니는 부잣집 플레이보이 이미지를 자신들의 컨셉으로 내세웠다.¹⁸⁾ 이런 시각적인 면을 강조하는 뉴 웨이브는 MTV(Music Television)의 등장에 의해 대중화되었다.¹⁹⁾

MTV는 1981년 8월 1일에 첫 전파를 내보냈으며, 하루 24시간 내내 팝 뮤직만 방영했다. 팝 뮤직과 TV가 결합하여 비주얼 뮤직(visual music)의 붐을 형성하게 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되었다.²⁰⁾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팝 가수들에게는 뮤직비디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MTV는 곧 스타들을 탄생시켰다. ‘드릴러(Thriller)’로 인기를 얻게된 마이클 잭슨이 그 대

표적인 존재이다. 애인과 밤길을 걷던 잭슨이 돌연 늑대인간으로 변하며 시작되는, 존 랜디스 연출의 ‘드릴러’ 뮤직비디오는 팝 음악이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었으며,²¹⁾ 인기를 얻기 위해서 뮤직 비디오는 이제 음반과 더불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 이후 프린스는 자신의 레코드를 영화로 만들어 마이클 잭슨이 다져놓은 비디오라는 발판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용했다.²²⁾ 그는 레이스 장식이 요란한 패션으로 인종과 섹스, 신에 관한 문제를 노래로 만들었으며, 대중에 의해 받아 들여 졌다.

198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세계의 패션경향이 다양화해지고 개성화 된 시기로 특히 여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교차시켜 아름다움을 표현한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 1984년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²³⁾ 이러한 현상은 팝 가수들의 여장이나 남성의 메이크업, 남녀 구별 없이 자유롭게 걸쳐 입은 무대의상이 일반인에게도 받아들여졌으며, 하이 패션에서도 양성화가 더욱 대담해지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뉴 웨이브 음악의 대담한 뮤지션 중 하나인 마돈나는 1982년 첫 앨범 “madonna”를 발표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1984년 “lake a virgin”이 빌보드 싱글 차트 6주 1위를 차지함으로써 인기를 얻게 된다. 마돈나는 음악에서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또한 미모와 춤, 관능적인 공연 매너 외에 현대의 젊은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기적이며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상을 보여 주었다.²⁴⁾ 음악에서 보여지듯 패션 또한 과격적이었다. 데뷔 당시 그녀는 아주 짧은 란제리 같은 스커트와 종교적인 장신구와 매치된 코르셋, 탈색된 웨이브 헤어의 섹시한 모습은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모방되었으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전파했다.

특히 그녀는 1990년 장 폴 고티에가 디자인한 <사진 15>의 원뿔로 된 브래지어 모양의 코르셋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나타남으로써 당시 대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겉옷과 속옷을 구분해 오던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며 패션 무대의 전면에 부각²⁵⁾되면서 더욱 대중적이 되었다.

마돈나와 버금가는 패션으로 주목을 받은 셰어 (Cher) 또한 섹슈얼리티의 대표적인 가수이다. <사진 16>은 속이 비치는 레이스 장식의 속옷차림의 드레스 의상을 입은 모습이다. 셰어는 마돈나 보다 더 파격적이고 노출 정도가 아주 심한 의상을 입었지만, 마돈나의 파격적 무대의상에 미치지 못했다.

속옷이 걸옷화된 배경에는 여성해방운동에 따른 정숙성, 도덕성 개념 약화의 영향과 60년대 미니의 보급 이후 여성들은 다리의 노출과 함께 성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지위를 남성과 동등한 입장으로 획득함으로써 더욱 강해진 여권 신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원래 1973년 샤탈 토마스(chantal Thomas)가 캐미솔 룩(Camisole look)을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향이지만,²⁶⁾ 1990년대 마돈나의 코르셋 드레스를 기점으로 상체부위의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노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노출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부터 거리에서도 속옷 같은 걸옷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시스루 룩에 이어 로맨틱 모드를 유행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란제리 룩은 브래지어, 슬립, 가터 벨트 등의 란제리를 비롯하여 코르셋, 페티코트 등 속옷으로 착용하던 것을 걸옷으로 변형²⁷⁾하는 시도는 실험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꾸준히 발표되어 지고 있으며, 하이 패션에서 먼저 발표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져 확산된 케이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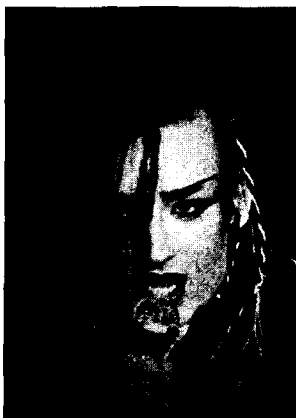
<사진 14> 짙은 화장과 플레이 보이 이미지의 듀란 듀란 (1982), Rock Fashion, 1997.



<사진 15> 코르셋드레스의 속이비치는 드레스 마돈나 (1990), <http://imagesearch.naver.com>



<사진 16> 레이스장식의 속이비치는 드레스 셰어 (1989), <http://www.nav.to/cher.extravaganza>



<사진 13> 여성보다 짙은 화장의 보이 조지 (1982), Rock Style, 1999.

6. 1990년대 레게·힙합(Reggae·Hip-hop)

199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조의 영향으로 패션에 있어 서로 다른 이미지가 절충되어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팝 음악에 있어서도 패션과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혹은 음악인 레게·힙합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의 등장으로 인해 패션에 있어서 새로운 룩이 생겨났다.

제3세계의 음악인 레게음악은 1968~69년 카리브해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새로운 팝 음악으로, 리듬 앤 블루스가 자메이카로 들어오면서 자메이카 정서에 맞게 바뀐 것이다.

레게를 세계적인 음악으로 부각시킨 인물은 바로 밥 말리(Bob Marley)이다. 1945년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혼혈아 밥 말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최고의 레게 스타다.

그는 음악으로 평화, 정의, 자유, 형제애, 아프리카의 회귀 즉, 라스타파리안리즘(Rastafarianism)을 노래했으며, 그의 음악은 방황하는 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

1962년 첫 번째 음반을 발매한 밥 말리는 'stop That Train'에 포함된 'Catch a Fire'로 전 세계인들에게 레게를 소개했다. 그 무렵 미국의 대중음악에도 레게의 영향을 받은 음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의 록 기타 연주자인 에릭 크랩튼이 밥 말리의 작품 'I shot the Sheriff'를 연주한 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유럽에서 말리의 인기가 급상승하였고, 레게는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뒤이어 여러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레게음악을 차용하여 인기를 얻음으로써 대중화에 기여했다.

레게 패션은 이디오피아 국기를 상징하는 색상들인 적색, 황금색, 녹색으로 만들어진 옷과 뱃지, 모자를 착용한 형태와, 특히 밥 말리의 드레드 록(dreadlocks)헤어스타일은 레게음악과 함께 유행되었다.<사진 17>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영국의 하위문화의 하나로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나타났으며, 1990년대 중반 레게 록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더불어 패션 또한 유행하였다. 원색적 색상대비의 의상들과 구제품 같은 상의, 특히 전체 머리를 땀은 레게파마와 드레드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레게음악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음악인 힙 합은 미국 내 흑인들이 즐기던 음악의 한 장르이다. 그들이 지니는 독특한 특징들이 결합된 하위문화로,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화적 경계들을 초월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²⁸⁾

힙 합은 1980년대 뉴욕 브롱크스 지역에서 가난한 흑인이나 푸에르토리코 소년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리 문화를 말한다.²⁹⁾

힙 합은 랩(RAP), 그래피티(Graffiti),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 DJing(MIXING)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힙 합은 1984년에 그룹 Run-DMC가 등장하면서 음악과 패션에 있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길을 열게 된다.

<사진 18>에서는 이들이 입은 가늘고 간소화된 트랙 수트와 라벨이 붙은 후드 티셔츠, 금으로 된 장신구, 스니커즈 등이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게 되었고, 이들의 옷과 스니커즈에는 항상 아디다스 상표가 찍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스포츠웨어로 자리하게 되었다.³⁰⁾ 이후 1992년 Marky Mark는 바지를 힙에 걸치고 그 사이로 켈빈 클라인의 브랜드 로고가 적힌 속옷이 보이는 이너 힙 합(Inner Hip-Hop)스타일을 유행시켰으며<사진 19>, 1996년 TLC는 혈령한 드럼 팬츠에 브래지어와 같은 탑을 입음으로써 여성스럽고 섹시한 힙 합 스타일을 유행시켰다<사진 20>. 그밖에 밀통이 좁아지는 배기 바지 스타일, 전체적으로 허벅지가 커 보이는 드럼 힙 합 스타일등 다양한 패션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힙 합은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고, 유명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Tommy Hilfiger는 여러 개로 나뉘어진 하위 브랜드에서 보다 전문적인 힙 합 스타일을 제작 발표하여 가장 대표적인 힙 합 스타일 디자이너가 되었다.³¹⁾



<사진 17> 알록달록한 옷에 드레드 헤어의 밥 말리 (1974), <http://marquest.hihome.com>



<사진 18> 트랙 슈트에 아디다스 스니커즈의 Run-DMC (1984), Rock Fashion, 1997.



<사진 19> 이너 힙합 스타일 Marky Mark (1992), Rock Fashion, 1997.

<사진 20> 드럼 팬츠에 탑의 TLC (1996), Rock Fashion, 1997.

현재 힙합 패션은 초기 스타일만을 고집하지 않고 실용적인 힙합 스타일을 추구하여 스포츠웨어와 힙합을 섞어 기능성 있는 옷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힙합 패션은 이제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이젠 유행을 넘어 청소년들의 생활의상으로 까지 정착되고 있다.

Ⅲ. 팝 음악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과 스타일 경향

본 장에서는 로큰롤형성과 젊은이들이 패션의

주도적 역할을 한 시기인 195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 팝 음악과 팝 스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진 대표적 패션스타일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현재까지 확산되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팝 음악적 패션 스타일을 록 스타일, 뉴 웨이브 스타일, 레게·힙합 스타일로 추출 할 수 있었다. 다변화된 사회 문화 속에서 팝 음악의 영향을 받은 패션들이 현대에는 어떠한 경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록 스타일(Rock Style)

1) 럭셔리어스 히피(Luxurious Hippie)

1960년대 전쟁과 물질 만능적이고 실리적인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히피 록커의 이미지는 그들의 독특한 패션과 함께 1970년대 초에 걸쳐 유행하였다. 이러한 히피 문화는 1973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는 계기로 막을 내렸고, 과격한 행동이나 패션들이 일순간에 모습을 감추었다.³²⁾

그 이후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1990년대에 들어 과학의 발전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재활용과 에코로지가 유행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1993년부터 서서히 다시 등장해 1994년도의 패션 테마로 재현되었다.

1990년대 히피 스타일은 60년대와는 달리 여성적이고 우아한 느낌의 Slim & Long 실루엣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쉬폰 같은 비치는 옷감과 니트를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꽃무늬 프린트물도 가미되어 여성적인 분위기를 상승시켰다.³³⁾ 또한 레이어드, 그런지, 레트로, 오리엔탈 스타일의 요소 등과 함께 융화되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디자이너들에 의해 더욱 다양한 스타일로 제시되었으며, 특히 <사진 21>구찌의 '99 S/S 컬렉션'에서는 글래머러스한 히피 록을 시도하였다.

<표 3> 팝 음악의 특성 및 팝 스타의 스타일 분석

년도	장르 및 뮤지션	출현 배경	음악적 특성	스타일 분석	메시지
1950	로큰롤 엘비스 프레슬리	전쟁 이후의 풍요로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흑인음악과 백인음악을 융합한 로커빌리 완성. 곧바로 성적으로 강렬한 로큰롤 이미지 구현	검은 가죽의상, 세퍼레이트 정장 테이퍼 팬츠, 빛 바랜 힙스터 스타일의 바지 duck tail 헤어스타일	반항의 상징 젊음의 발산
1960	록 비틀즈 롤링 스톤즈 더 후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로 기성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항	가볍고 상쾌, 달콤한 로큰롤에 친숙한 멜로디와 호소력 짙은 가사가 특징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의 칼라 없는 수트와 뾰족한 부츠, 앞머리를 직선으로 자른 헤어스타일	상류생활 지향, 중성적 관념 수용
			불량스럽고 거친 음악적 사운드와 이미지로 젊은이들의 하위정서를 대변한 가사 특징	캐주얼한 쓰리 버튼 재킷, 노 넥타이의 셔츠, 플랫 포켓이 달린 스트라이프 수트, 층이 지고 길어진 헤어 스타일	불손한 태도 권위에 도전 섹스어필
			시끄럽고 폭력적이면서 불안한 음악 젊은이들의 욕구불만을 적나라하게 표현	튀는 색상의 수트, 캐주얼한 느낌의 쓰리 버튼 재킷, 유니온 잭 재킷, 그래픽 패턴 티 셔츠, 앞머리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층이 많이 진 헤어스타일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과 현실로부터 탈출
사이키델릭 록 제니스 조플린 지미 헨드릭스	베트남 전의 반대 기존체계에 저항, 평화적 해결 방안 추구	마리화나나 LSD의 환각제 사용에서 얻은 이미지를 사운드화 한 실험 음악	짚시폰의 블라우스, 이국풍 털모자, 비즈와 스팅글로 장식된 화려한 코트, 현란한 무늬 셔츠, 술 달린 디안 폰의 옷, 여러 가지 에스닉한 악세 서리, 헝클어진 머리, 아프로 헤어스타일에 헤어 밴드를 착용.	기존의 규칙과 질서 거부, 자유연애와 명상 실천 현실 도피 자연 회귀	
1970	펑크록 섹스 피스톨스	경제불황, 실업과 빈곤에 저항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음악이 특징	비대칭으로 디자인한 검은 가죽 점퍼, 아무렇게 낙서한 옷과 쇠사슬, 주사기, 안전핀 등의 악세 서리, 머리끝이 뾰족한 헤어스타일	반 패션의 선구자, 허무주의, 히스테리, 폭력, 성혼용
1980	뉴 웨이브 (댄스뮤직) 보이조지 듀란듀란 마이클 잭슨 프린스 마돈나 웨어	경계의 와해에 따른 성개념 모호 여권신장	단순하면서 감미롭고 전자사운드의 댄스뮤직	여자보다 짙은 메이크업,, 남녀 구별 없이 자유롭게 걸쳐 입는 무대의상으로 중성적 이미지 강조 여성적 헤어스타일	귀족주의 신비주의 중성적 이미지
			색시한 동작과 가사로 관능적 이미지를 강조	레이스 속옷 드레스, 속옷과 같은 형태의 무대의상으로 대담한 노출이 시도, 탈색하거나 헝클어진 웨이브 헤어스타일	이기적, 도전적 현실적인 여성상, 섹슈얼리티
1990	레게 · 힙합 밥 말리 런 디엠씨 마키마크 티엘씨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레게는 시원하면서 가벼운 자메이카 특유의 리듬이 특징. 힙합은 랩과 DJing, 브레이크 댄스, 그래피티 등의 요소들이 결합한 흑인음악이며, 인종차별과 사회비판적인 가사가 특징	레게는 원색적인 옷과 드레드 헤어스타일이 특징. 힙합은 트랙수트, 라벨이 붙은 후드 티 셔츠, 아디다스 스니커즈, 이너힙합스타일, 드럼팬츠, 배기 팬츠 등 헝클어진 스타일이 특징, 머리를 가닥가닥 땀은 헤어스타일	평화, 정의 자유, 형제애, 아프리카의 회귀,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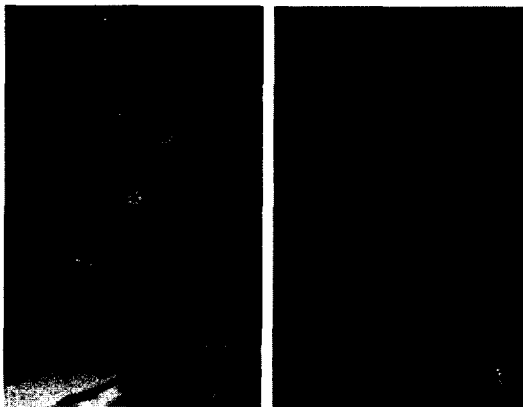
2002년 미국의 9·11테러와 아프칸 전쟁으로 인해 1960년대의 이념사상인 반전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히피패션이 다시 패션 테마로 등장하게 된다. <사진 22>의 Blumarine은 '2002 S/S 컬렉션'에

서 전체적으로 1960, 70년대의 히피 스타일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테일 속이 비치는 소재나 구김 있는 소재, 주름 장식 등의 현대적인 감각과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로맨틱 보헤미안 스타일로, Versace

는 화려한 색상의 사이키델릭 프린트등 소재와 패턴, 디테일에서 보다 럭셔리한 히피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헤어스타일은 1960년대의 히피 록커들의 일부러 빗질 안한 헝클어진 긴 머리와는 다른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의 인위적인 롱 헤어스타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의 지저분하고 낡은 느낌의 스타일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와서는 한결 부드러우며 화려하면서도 고급화되어 세련된 느낌의 럭셔리어스(Luxurious) 히피 스타일로 재현하였다. 유사한 사회상으로 인해 다시 재현된 히피 패션은 당시의 정신적인 의미는 퇴색되고 외형적인 요소들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층에만 국한되었던 히피패션은 오늘날 하이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시 발표되면서 자연스럽게 유행되어 연령과 상관없이 확산되어 입혀지고 있으며, 스펅글이나 비즈, 꽃 장식과 술 장식 등으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직접 만들어 입는 경향도 유행하고 있다.



<사진 21> 꽃무늬 프린트의 글래머러스한 드레스 Book Moda, 1999 S/S Gucci
 <사진 22> 비치는 소재에 수공예적인 수와 꽃장식의 패치워크로 화려한 드레스 www.firstview.com, 02 S/S Blumarine

2) 하이브리드 핑크(Hybrid Punk)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된 핑크록의 사상과 패션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990년대에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1990년대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복고 무드가 팝 음악에도 영향을 주어 1970년대의 록 음악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³⁴⁾ 경기침체에 의한 불황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서 새로운(neo-punk) 핑크가 등장하게 되었다. 스타일 면에서는 1970년대 핑크에 사용된 장식들인 체인, 안전핀, 지퍼 등의 금속장식과 검정 색의 가죽이나 비닐 또는 고무제품으로 만든 팬츠나 재킷에 머리를 완전히 밀어 버리거나 볼레감을 주는 메이크업으로 더욱 과격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네오 핑크에 이어 1990년대 말에는 핑크록의 미래지향적 사운드와 현대문명적 이미지가 복합된 하이테크 이미지로써 사이버(Cyber) 핑크 스타일의 등장을 들 수 있다.³⁵⁾ 사이버 핑크는 최첨단 직물인 홀로 그래픽 직물과 함께 자동차의 휠 캡, 가스마스크, 고무튜브 등을 옷에 부착하고 플라스틱이나 스트레칭성 소재, 비닐 실버코팅 폴리우레탄, 인조 가죽 등의 신소재와 금속성 소재로 우주적 이미지와 첨단 테크놀로지적인 요소로 미래지향적으로 표현하였다.³⁶⁾

김순자³⁷⁾는 21세기의 사회가 다변화되고 컴퓨터 문화가 발달하면서 문화 장르간의 벽 허물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융합 현상이 전 문화 분야로 확산되는 하이브리드(Hybrid) 현상으로 보고, 패션 또한 이러한 현상의 영향을 받아 아이템간의 혼용과 일부분의 이미지를 빌려오거나 서로 상반되는 성분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형태인 하이브리드 핑크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 핑크는 기존의 핑크 적 요소에 복고적인 것, 다 문화적인 것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패션 요소들을 믹스시켜, 과거의 혐오스러운 스타일이 아닌 재미있고 신선하고 화려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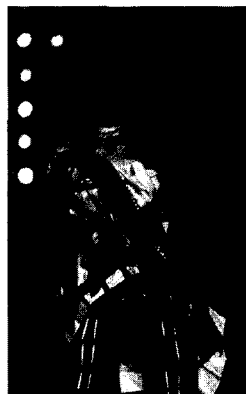
특히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같은 과격적인 디자이너들은 하이브리드 핑크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 23>의 장 폴 골티에는 01/02 F/W 컬렉션에서는 네트 소

재, 사슬, 금속징 등의 핑크적 요소와 바로크 시대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퇴폐적이면서 복잡한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사진 24>의 존 갈리아노는 02 S/S 컬렉션에서 그림이나 글씨를 삽입하거나 지퍼 장식과 구멍이 뚫린 바지 등, 평범한 의상의 개념을 넘어선 의상들을 선보였다. 이들은 반문화적이고 반사회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0년 이후에 나타난 핑크 스타일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다양한 스타일들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1970년대의 하위문화가 지는 저항 의식이나 부정부주의적 모습은 배제되고 외형적인 스타일만이 모방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핑크의 장식적인 요소로 옷에 매치 시켜 코디 함으로써 개성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 의해 선택되어 지고 있다.



<사진 23> 네트 소재에 사슬, 금속징 장식으로 퇴폐적인 이미지 표현,
Book Moda,
01/02, F/W Jean Paul Gaultier



<사진 24> 그림이 그려진 가죽의상에 큰 지퍼, 구멍이난 바지,
Book Moda, 02 S/S
John Galliano

2. 뉴 웨이브 스타일(New Wave Style)

1)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성의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표현 방식³⁸⁾인 앤드로지너스 룩은 1980년대 팝 가수들의 여장이나 여성스러운 길은 색조화장, 헤어

스타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뿐 대중화되지 못하다가 1990년 이후 최근의 패션에 있어 앤드로지너스 룩은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앤드로지너스 룩은 게이들의 사회참여와 패션 계에서의 파워가 거세지면서 패션과 향수 광고에서는 가장 즐겨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되었다. <사진 25>은 2002년 향수 광고 비주얼로 남성 향수 광고에 짧은 헤어스타일과 화장기 없는 중성적 이미지의 여성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 소재의 다양화로 남성 패션의 범위를 넓혀 주었으며,³⁹⁾ 여성복에서 주로 쓰여지는 소재인 실크나 니트, 속이 비치는 소재까지도 남성복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성복에 앤드로지너스의 표현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되었고, 다양한 색채와 부드러운 재질감, 여성스러운 실루엣의 테일러드 수트, 블라우스의 리본과 프릴장식, 스카프의 코디로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앤드로지너스 룩을 형성하였다. 또한 남성들의 색조화장과 여성스런 헤어스타일은 앤드로지너스 룩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앤드로지너스의 대표적 디자이너인 장 폴 고티에(G.P.Gaultier)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남성에게 스커트를 입힘으로써 성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남성 스커트가 유행되기도 하였으며,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01/02 F/W 컬렉션과 02 S/S 컬렉션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스커트와 원피스 그리고 여성스런 가방이나 신발 등을 코디 하여 보여주고 있다. <사진 26>은 라운드 티셔츠에 니트 가디건, 무릎길이의 A-라인스커트로 여성의 옷을 그대로 입은 모습이며, <사진 27>은 셔츠 모양의 긴 원피스 차림에 발레 슈즈와 같은 신발을 신은 모습이다.

오늘날 기존의 강인한 남성상에서 깨끗하고 고운 외모의 미소년 스타일의 남성상으로 이상형이 바뀌고 있다. 이들은 여자보다 더 하얀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잘 정돈된 눈썹은 잘 생겼다고 보기보다는 예쁘다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발맞춰 패션과 뷰티 산업들이 꾸준한 성장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특히 남성 화장품 시장은“2001년에 1700억원 규모였던 시장은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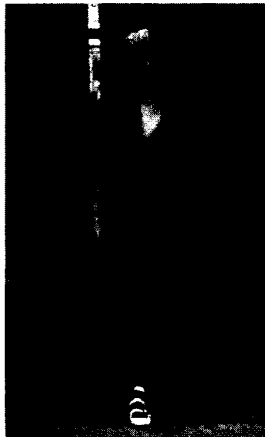
년 현재 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⁴⁰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앞 다뤘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피부과, 성형 외과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제 앤드로지너스는 남성미와 여성미를 조화시킨 패션과 여성들의 패션을 그대로 모방한 패션은 한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스타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25> 모호한 모습의 이미지, 휴고 보스 광고비주얼, FARBE 2002. 5.



<사진 26> 몸에 붙는 니트 가디건과 A-라인의 스커트의 코디, Book Moda, 01/02 F/W Vivienne Westwood



<사진 27> 셔츠형의 긴 원피스와 여성스런 슈즈, Book Moda 02 S/S Vivienne Westwood

2) 란제리 스타일(Lingerie Style)

1990년대 마돈나의 코르셋 드레스이후 속옷과 겹옷이 크로스 오버된 형태의 란제리 룩이 유행하게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속옷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디자이너들에 의해 꾸준히 발표되면서 현재에는 여성복에 있어 하나의 패션 트렌드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은 단순하면서도 많은 노출을 통해 에로틱한 패미니즘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나 속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룩, 란제리 룩으로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여성적 매력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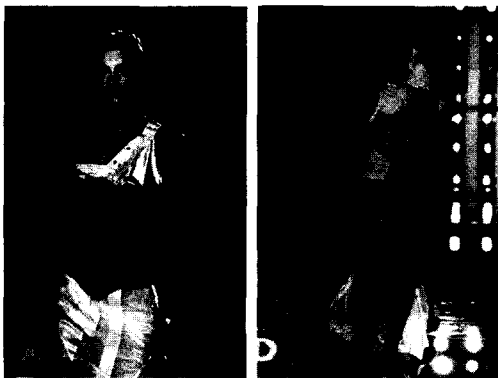
란제리 룩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브래지어나 코르셋 등의 속옷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살갗을 비치게 하거나 밖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얇고 하늘거리는 소재가 주로 쓰이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몸의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판·니트·레이스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겹옷의 아래에 프릴이나 레이스를 달아 속옷이 드러난 듯한 차림도 유행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속옷을 모티브로한 더욱 다양해진 디자인과 착장법이 시도되고 있다. 2002년 S/S 컬렉션에서 구찌(Gucci)는 1980년대 장 폴 고티에가 마돈나를 위해 디자인 해 준 콘 브라를 패러디한 의상을 선보였으며, 돌체가바나(Dolce Gabbana)는 속옷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로맨틱한 섹시함을 표현하였다. <사진 28>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겹옷 위에 코르셋을 입은 의상, 그리고 <사진 29>에서는 브래지어를 가방 매듯이 뒤로 걸치고, 얇고 비치는 소재의 속치마 같은 스커트를 흘러내리듯 착용한 모습은 기존의 에로틱하고 섹시함의 란제리 룩이 아닌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입혀지고 있는 스타일은 재킷 안에 톱이나 슬립 원피스를 받쳐입는 형태로, 특히 톱은 어깨 끈 없이 끈을 목에 묶는 홀터넥과 한쪽 어깨 끈만 있는 비대칭 톱, 가슴 선이 깊게 파인 톱이 계절과 상관없이 유행하고 있으며, 잠옷 같은 형태의 파자마가 입혀지기도 했다. “ 2001년

봄, 미 전역에서는 고교와 대학에서 파자마 바지가 외출복으로 인기를 얻으며 유행하고 있다.”⁴¹⁾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언뜻 보기에는 잠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 듯한데, 파자마를 재현한 헐렁하고 편안한 스타일로 주로 바지의 허리 부분을 고무줄로 처리하거나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속옷 그 자체를 겉옷으로 착용하거나, 겉옷을 의도적으로 오픈 하여 속옷을 노출하거나, 속옷의 소재나 형태에 변화를 주어 겉옷과 매치⁴²⁾ 하는 등 새로운 착장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제 노출의 극대화는 더 이상 속옷과 겉옷이라는 의복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할 뿐 아니라, 속옷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의 신체도 디자인의 일부로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28> 겉옷위의 코르셋, Book Moda, 02 S/S Christian Dior

<사진 29> 브라지어를 등뒤에 걸치고 속치마를 흘러내리게 입은 모습, Book Moda, 02 S/S Christian Dior

3. 레게·힙합 스타일 (Reggae · Hip-hop Style)

힙합 문화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가장 주목받는 유형의 문화로 음악과 언어에 이어 패션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새롭게 각광받았던 레게와 힙합은 레게음악이 수그러들면서 차츰 없어졌으며, 현재에는 서로 혼합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힙합 패션에 가다가 닥 땅은 헤어스타일과 빗질하지 않고 둘둘 말아서 늘어뜨린 드래드 헤어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힙합 패션은 런 디엠씨(Run-DMC)로 대변되는 후드 티셔츠에 금 장신구, 아디다스 스니커즈에서 1990년대 이너 힙합 스타일, 배기 팬츠 스타일, 드럼 힙합 스타일등 하이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패션들이 유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서태지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힙합 문화의 유입보다는 힙합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젊은이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불러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현재에는 힙합 패션이 단순히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패션만이 아니라 T.P.O와 상관없이 입혀지고 있다.

한국일보의 2000년 12월 6일자를 보면 “힙합 스타일의 스노보드 룩이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입고 벗기 편한데다 일상복으로도 무난하게 소화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힙합 패션에 방수, 방온 등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강하여 스포츠 웨어로서 입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30>은 스노보드 패션으로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다. 또한 <사진 31>와 같이 재택 근무자와 편안한 캐주얼에 익숙한 사회 초년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힙합 패션 또한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그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

이들 컨셉을 반영한 강렬한 색채, 큼직한 스타일링의 FUBU, 메카, PNA 네이션 같은 브랜드의 로고를 단 의상들은 대형 백화점의 한 코너를 차지할 만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대의 복고풍에 편승하여 1980년대의 힙합 패션인 줄이 들어간 트레이닝복과 슈즈가 재현되었다.

힙합 패션, 힙합 뮤직, 힙합 스타일, 힙합 댄스 등 1980년대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용어와 스타일이 1990년대의 문화 전반을 힙합 문화가 이끌어 갔으며, 21세기의 힙합은 하나의 문화코드이며, 계층·집단·연령·인종·지역·성별을 초월하여 나타나고있다. 흑인들의 하위문화 그룹의 패션으로 시작하였으나 매스패션과 하이 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현대 패션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힙합 음악의 열기가 식지 않는 한 힙합 패션 또한 계속해서 유행하리라 본다.



<사진 30> 험령한 티셔츠에 점퍼, 험령한 팬츠(2002), <http://www.ufojeans.com>

<사진 30> 오버사이즈의 점퍼와 팬츠,(1999) FASHION, 1999.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팝 음악은 젊은 세대들에겐 근본적으로 체제에 대한 반항과 저항,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욕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노래한 가수들은 곧 우상이 되었으며 음악뿐만이 아니라 패션까지 모방되어졌다. 팝 스타들에게 있어서 패션은 음악의 한 일부이며, 자기표현이며, 음악적인 메시지를 확대시키는 하나의 도구이다. 이러한 팝 음악에는 저항의 정신과 폭력, 반항, 마약, 섹스, 인종차별과 같은 사상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큰롤의 형성기인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팝 음악변천에 따른 팝 스타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였다. 1950년대의 로큰롤, 1960년대의 록과 사이키델릭 록 1970년대 핑크 록, 1980년대 뉴 웨이브 그리고 1990년대의 레게·힙합으로 특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팝 음악이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친 스타일을 록 스타일, 뉴 웨이브 스타일, 레게·힙합 스타일로

<표 4> 팝 음악이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친 스타일 분석

팝 음악적 패션		스타일 분석
록 스타일	럭셔리어스 히피	다양한 디테일, 속이 비치는 소재 주름 장식 등의 현대적인 감각 여성스러운 로맨틱 보헤미안 스타일, 화려한 색상의 사이키델릭 프린트 소재와 패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의 인위적인 롱 헤어 스타일
	하이브리드 핑크	기존의 핑크적 요소+복고적인 것+다문화적인 것+여러가지 다양한 패션 요소 믹스 과거의 혐오스러운 스타일이 아닌 재미있고 신선하고 화려한 스타일
뉴 웨이브 스타일	앤드로지너스	남성 패션의 여성복에서 주로 쓰이는 소재와 다양한 색채 사용 여성스러운 실루엣의 테일러드 슈트와 스커트, 다양한 장식의 액세서리로 코디 여성스러운 헤어 스타일과 화장 등 미소년 같은 예쁜 남성이 각광 받고 있다.
	란제리 스타일	몸의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판·니트·레이스 소재 사용 속옷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과 새로운 착장법 시도 계절과 상관없이 톱이나 슬립 원피스 잠옷 같은 파자마 바지 유행
레게·힙합 스타일		T.P.O.와 상관없이 착용 힙합 패션에 방수, 방온 등의 기능적인 측면 보강 스포츠웨어(스노보드 록)로 입혀지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대응 80년대의 힙합 패션인 줄이 들어간 트레이닝 복과 슈즈 재현 레게 헤어스타일+힙합 패션

IV. 요약 및 결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젊은이들은 경제권을 가지게 되면서 사치와 소비의 문화로 팝 음악이 발전

추출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록 스타일은 최근 패션에 수용되면서 럭셔리어스 히피와 하이브리드 핑크로 재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테러와 아프칸 전쟁으로 인해 1960년

대 이념사상인 반전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히피스타일이 다시 패션 테마로 등장하게 되면서, 1960년대의 지저분하고 낡은 느낌의 스타일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와서는 한결 부드러우며 화려하고 고급화되어 세련된 느낌의 럭셔리어스 히피 스타일로 재현되었다. 핑크 스타일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초의 네오 핑크, 1990년대 말의 사이버 핑크, 현재에는 아이템의 혼용과 일부분의 이미지를 빌려오거나 서로 상반되는 성분들이 결합하여 생긴 하이브리드 핑크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의 하위문화가 가지는 저항 의식이나 무정부주의적 모습은 배제되고 외형적인 스타일만이 모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핑크의 장식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코디 함으로써 개성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 의해 선택되어 지고 있다.

두 번째 뉴 웨이브 스타일인 앤드로지너스는 1980년대 팝 가수들의 여장에 의해 알려지면서 이후 의복에 성 차가 없어지고 남성복식에 여성복의 요소가 도입되어 나타났다. 여성복에 쓰여지는 소재나 여성스런 실루엣 수트와 악세서리, 여성스런 헤어스타일과 화장 등 오늘날 강인한 남성 상에서 미소년 같은 예쁜 남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패션과 뷰티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남성 화장품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남성미와 여성미를 조화시킨 중성적 이미지의 패션과 여성의 패션을 그대로 모방한 패션이 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란제리 스타일은 1990년대 마돈나의 코르셋 드레스를 기점으로 속옷을 모티브로 한 많은 디자인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속옷 자체를 겉옷으로 착용하거나, 겉옷을 의도적으로 오픈 하여 속옷을 노출하거나, 속옷의 소재나 형태에 변화를 주어 겉옷과 매치 하는 등 새로운 착장법의 시도와 노출의 극대화는 더 이상 속옷과 겉옷이라는 의복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할 뿐 아니라, 속옷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1990년대 문화 전반을 레게·힙합 문화가 이끌었으며, 현재에는 힙합 패션이 단순히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패션만이 아니라 T.P.O와 상관없이 입혀지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을 보장하여 스포츠 웨어로도 입혀지고 있으며,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복고풍에 편승하여 1980년대 힙합 패션인 스트라이프 트레이닝복과 슈즈가 다시 재현되었다. 이제 백화점의 한 코너를 차지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힙합 패션은 21세기 하나의 문화 코드이며, 계층·집단·연령·지역·성별을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패션 스타일들은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며, 이러한 현상들은 확산되어 유행되기까지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나, 결정적으로 팝 음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과 행동 양식 뿐 아니라 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또한 TV보급과 MTV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고, 기성세대들도 그들의 유행 요소를 따르게 되었다. 초기의 패션 스타일들은 하이 패션에 상향 전파되어 도입되면서 좀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탈바꿈하여 다시 주류패션으로 확산 하향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패션은 시대는 달라도 과거와의 비슷한 시대적 상황이나 미의식의 변화로 계속해서 재현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팝 스타들의 음악과 그들의 패션 또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김서연, 박길순, 정현숙(2001). 힙합의 문화적 성격과 관련한 힙합 패션의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9(5), p.747.
- 2) <http://monthly.joins.com/orgwin/199911/win54066.html>
- 3) 장미선, 조규화(1996).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 20, p.329.
- 4) 윤희(1997). Mods Look. Fashion Today, 1월호, p.29.
- 5) 이명진(1997). 1990년대 남성복에 재현된 모즈 스타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원 석사논문, p.4.
- 6) 서동진(1998). 락 젊음의 반란. 서울: 새길, p.118.

- 7) <http://www.gaseum.com/1-2/article/002-his02.htm>
- 8) 김지영(1995). 이상의 시대 반항의 음악. 문예마당, p.99.
- 9) 이수인, 박길순(1999).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p.568.
- 10) <http://www.fashiontalk.com/theme/hippie/music/woodstock.html>
- 11) <http://www.woodstock.co.kr>
- 12) <http://www.icdmusic.com>
- 13) 이수인, 박길순(1999). 앞의 책. p.573.
- 14) 서동진(1988). 앞의 책. p.207.
- 15) 위의 책. p.213.
- 16) 위의 책. pp.214-215.
- 17) Fashion in history(2002). 재미있는 연대별 패션사. Farbe, 3월호 별책부록, p.72.
- 18) 서동진(1988). 앞의 책. p.241.
- 19) 정혜순(1992). 팝 유적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 논문, p.49.
- 20) 위의 책. p.49.
- 21) <http://monthly.joins.com/orgwin/199911/win54066.html>
- 22) 정혜순(1992). 앞의 책. p.50.
- 23) Fashion in History(2002). 앞의 책. p.74.
- 24) 정혜순(1992). 앞의 책. p.51.
- 25) 이상례(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옷화 현상. 한국복식학회, 11, p.325.
- 26) 정혜순(1992). 앞의 책. p.59.
- 27) 김문숙, 김현주(1997).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에 관한 고찰. *J. Nat. Sci. Inst., Seoul Women's Univ.*, 8, pp.157-158.
- 28) 김서연, 박길순, 정현숙(2001). 앞의 책. p.747.
- 29) 힙합 스타일. 두산 세계 대백과, <http://www.encyber.com>
- 30) 김서연, 박길순, 정현숙(2001). 앞의 책. p.754.
- 31) 위의 책. p.756.
- 32) Fashion in History(2002). 앞의 책. p.71.
- 33) 김경인, 이윤정(1994). 히피, 펑크와 네오 히피, 네오 펑크의 비교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p.268.
- 34) 위의 책. p.270.
- 35) 엄소희(1995).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대한 연구. 복식, 26, p.116.
- 36) 김순자(2002). 펑크 스타일의 상징적 의미와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2(6), p.159.
- 37) 위의 책. p.159.
- 38) 김경옥, 금기숙(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 p.243.
- 39) 위의 책. p.252.
- 40) 동아일보(2002. 10. 28). 여자만 확장하라는 법 있어. 건강/생활 면 기사.
- 41) 매일경제(2001. 5. 13). 미국 '과자마 바지' 유행, 고교

생·대학생 외출복 인기.

- 42) 김문숙, 김현주(1997). 앞의 책. p.158.